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과 대인스트레스

권 혜 진¹⁾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학령기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이 대인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318명을 대상으로 어머니표상, 자아탄력성, 대인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의 어머니 표상을 통제하였을 때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의 중재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어머니표상, 자아탄력성, 대인스트레스

1)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E-mail : jini2005@kornu.ac.kr)

I. 서 론

학령기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면에서 많은 질적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학령기 아동들은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에서 크고 작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민하영, 유안진, 1999; 한미현, 1996). 학령기 아동은 일상적 스트레스 중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전체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친구관련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민하영, 유안진, 1999)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와 학교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로 학령기 아동들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대인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는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령기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개념 접근하는 것에 반대하여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로운 효과를 중재하는 대처변인과 적응변인을 포함하여 스트레스를 재정의(한미현, 1996)하고 있다. 비슷한 환경의 유사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의 상호과정에서 유발되므로(Lemper & Clark-Lempers, 1990),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양은 다르다. 최근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교현, 외, 2005; 임주희, 최연실, 2006; 정현희, 최경순, 2001; Herman-Stahl & Peterson, 1996).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를 중재하는 요인들을 탐색해봄으로써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는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으로서 대인관계의 주체인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의 대상인 타인들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표상을 지니느냐에 따라 대인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권석만, 김지영, 2002). 따라서 대인스트레스는 대인표상과 자신에 대한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대인스트레스는 아동이 중요한 타인과 어떠한 대인관계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실의 대인관계 경험은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므로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에서 긍정적 대인관계 경험을 할 경우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기대를 하게 되지만(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반대로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이 많을 경우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이 된다. 아동의 대인관계 경험에서 가장 일차적 경험은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며, 이 내적 표상은 또래 관계를 비롯한 가정 밖의 사회적 관계로 확대된다(김귀연, 김경연, 2005; Holmes, 1993).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며 대응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표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더 적었고(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정명진, 김광웅, 조유진, 2006; Verschueren & Marcoen, 1999; Lyons-Ruth, 1996). 반면 어머니

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형성한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무시나 불확실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기대를 하였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이러한 아동들은 낯선 상황에서 과잉긴장하고 불안하며 분노 반응을 보이며 정서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민성혜, 이영, 2006; Solomon & George, 1999; Zimmermann, 1999)는 것이다. 아동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아동의 우울증상(김영아, 2000; Rudolph et al., 1995), 문제행동(김미정, 이춘재, 2006), 위축 및 공격성(김귀연, 김경연, 2005), 또래관계(나유미, 2001; 정명진 외, 2006; 정미현, 2003), 정서적 스트레스(고영미, 1995)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가장 가까운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형성하며(고은정, 1996; Stroufe, Carlson & Shulman, 1993),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아동의 대인관계나 적응양식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였다. 반대로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형성한 경우 아동생활사건에서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기존의 연구(나유미, 2001; 정명진 외, 2006; 정미현, 2003; Bretherton & Munholland, 1999; Shirk & Eason, 1996)에서처럼 어머니표상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표상이 비록 대인관계 발달에서 주요하게 평가되는 심리적 환경요인이라 해도 학령기아동의 대인관계 발달을 아동의 외적 환경 요소라 할 수 있는 어머니표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 관계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통제감, 낙관적 태도, 호기심 등 개인 내적 특성에서 탄력성(resilience)을 갖는 아동의 경우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Garmezy, 1991; Rutter, 1979).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아동의 심리적 환경 변인 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자기에 대한 지각과 내적 인성 특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내적 인성 특성 중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있을 뿐 아니라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을 보호하는 탄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심희옥, 1997).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아동들마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차를 자아탄력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김교현 외, 2005; 장경문, 2003; Kwok et al.,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은 쉬운 기질, 내적 통제감, 자율성, 사회성, 인지적 능력 등 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외적 요인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김선희, 2005; 이은미, 박인전, 2001; 정미현, 2003), 안정적 애착, 가족의 건강성(강희경, 2003)과 같은 가족내적환경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애착정도와 자아탄력성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권지은, 2003)도 보고되어서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같은 요인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덜 받으며 유능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Walsh, 1998).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나가며(Block & Block, 1980), 이러한 아동들은 환경의 요구에 따라 긴장을 인내하면서 자아통제수준을 조절하는 역동적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Letzring, Block, & Funder, 2005)을 가지고 있다.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활력이 있으며 감정통제 및 조절을 잘하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낮은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병리적 문제가 더 적다(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은 외적, 내적 긴장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Klohn, 1996)으로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성격 차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업성취도(박은희, 1996; Kwok et al., 2006), 학교생활만족도(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적응성취(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와 관련이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더 잘 하였고(김윤희, 황순택, 2003; 현은민, 박혜영, 2005),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 느꼈다(Friborg, Hjemdal, Rosenvinge, Martinussen, Aslaksen, & Flaten, 2006). Neighbors 등(1993)은 높은 부모갈등수준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만 경험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이 행동 및 정서적 불안 수준을 낮추고 보호요인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Tugade, & Fredrickson, 200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부적응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것은 아니어서 Luthar(1991) 등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도 부모의 갈등을 포함한 높은 스트레스환경에서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의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또한 일차적 양육자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이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어머니 표상과 자아탄력성, 대인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음의 연구문제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¹⁾

1)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토대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변인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려면 (1)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2)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3) 독립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연구문제 1.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해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은 영향을 미치는가?

1) 아동의 어머니표상 통제 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 효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통제 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D초등학교 6학년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중기 아동기는 인지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김영아, 2000; Rudolph et al., 1995)이며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 발달이 10세 이후부터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박은희, 1996; Block & Kremen, 1996)에 따른 것이다. 6학년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변화하는 시기로서 다른 학년에 비해 부과되는 과제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적 긴장과 환경적인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 이들에게

한다 (4)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는 매개 변인이 통제될 때,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남아(53.8%)가 여아(48.4%)보다 약간 많았다. 형제가 1명(57.2%)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2명이상(33.6%), 외동아(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부부핵가족(77.7%)이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부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17.3%), 조부모와 한부모,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2.8%), 한부모가족(2.2%)의 순으로 나타나서 전체연구대상의 5%정도의 아동이 부모 중 한명과 생활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39.3%)이 가장 많았으며 고졸(37.7%), 대학원졸(9.4%), 중졸(6.9%), 전문대졸(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44.7%)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34.3%), 중졸(8.5%), 대학원졸(7.2%), 전문대졸(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어머니표상 검사, 자아탄력성검사, 학령기 대인스트레스검사이다.

어머니표상

이 척도는 Rudolph(1994)가 개발한 아동용 대인도식질문지-어머니용(Children's interpersonal Questionnaire-mother)으로 아동이 어머니와 상호작용할 때 기대하게 되는 관계표상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아(2000)에 의해 번안되어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보고된 한글판 '아동 대인관계 도식- 어머니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만 12세까지 사용한 바 있어 본 연구대상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아동에게 그들의 어머니와의 전형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의 어머니가 반응하리라고 기대되는 가장 적절한 반응태도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어머니의 반응양식은 (1) 보살피며 감싸주는(caring) (2) 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된(indifferent) (3) 강압적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인(hostile)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문항들은 정서적 반응성, 수용성, 가용성과 같은 애착관계의 행동적 차원들과 관련하여 구성되어있다(Rudolf et al., 1995).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유형은 각각 0, 1, 2점의 점수를 받게 되며 어머니표상의 전체점수는 0점에서 3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표상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6$ 이었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외적, 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이다. 즉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특히 좌절을 느끼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완고한 모습을 보이며 굳어있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이은미, 박인전, 2002). 본 연구에서는 박은희(1996)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그렇다(1점)’에서 ‘대부분 아니다(4점)’의 4점 척도로 되어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화하였다. 전체문항의 점수는 40점에서 16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9$ 로 나타났다.

학령기 대인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부모스트레스 8문항, 친구스트레스 7문항, 교사스트레스 7문항의 총 22문항으로 대인스트레스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로 하였으며 전체문항의 총점은 22점에서 88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인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9$ 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조사용 질문지는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학급 담임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된 후 회수되었다. 회수된 350부의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 32부를 제외하여 318부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문제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매개 변인에 관한 Baron과 Kenny(1986)의 전제 조건에 근거해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 효과의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 간 대인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통제 없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표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대인 스트레스

독립변인	대인스트레스 평균(SD)	t값
남자(171)	2.09(.54)	.02(n.s)
여자(147)	2.17(.52)	

한편 자아탄력성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2.07(SD=0.46)로 나타나서 연구대상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은 중간수준이었다. 아동의 어머니표상 평균은 2점을 기준으로 0.43(SD=0.29)로 나타나서 아동들은 비교적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대인스트레스와의 관계

표 2에서와 같이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6$, $p<.01$). 독립(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종속변인(아동의 대인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대인스트레스를 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 $\beta=.16$, $p<.01$). 즉,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아동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대인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대인스트레스(n=318)	
어머니표상	.16**

** $p<.01$

표 3.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표상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대인스트레스(n=318)		
	B	Std. Error	β
상수	2.06	.04	
어머니표상	.15	.05	.16**
R2		.03	
F값(df=1,316)		8.20**	

** $p<.01$

연구문제 2.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표 4에서와 같이 어머니표상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r=.44$, $p<.001$)으로 나타났다. 독립(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종속변인(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

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과(표 5 참조),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0$, $\beta=.44$, $p<.001$). 즉,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상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둘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n=318)	
어머니표상	.44***

*** $p<.001$

표 5.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어머니 표상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아탄력성(n=318)		
	B	Std. Error	β
상수	1.77	.04	
어머니표상	.70	.08	.44***
R ²		.20	
F값(df=1,316)		76.50***	

** $p<.001$

연구문제 3.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아동의 어머니표상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대인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근거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지를 부분상관관계와 중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아동의 어머니표상 통제 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대인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r=.25$, $p<.001$) 한편 표 7의 결과를 보면, 아동의 자아탄력성 통제 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와 어머니표상 간에 나타났던 유의한 상관관계(표 2 참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r=.03$, $p>.05$).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3, 4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2, 3>의 결과는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표상 효과가 아동 자신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경로모형 계수는 표 5의 결과와 표 8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사용하였다(이홍탁, 2001).

표 6. 아동의 어머니표상 통제 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대인스트레스의 부분상관관계

대인스트레스(n=318)	
자아탄력성	.25***

*** $p<.001$

표 7. 아동의 자아탄력성 통제 시,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대인스트레스간의 부분 상관관계

대인스트레스(n=318)	
어머니표상	.03(ns)

표 8.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 종속변수		대인스트레스(n=318)			
		B	Std. Error	β	R ²
1	상수	29.60	.82		.03
	어머니표상	.15	.05	.16**	8.34** (df=1,316)
1	상수	20.39	2.05		.08
	자아 탄력성	.22	.04	.30***	30.87*** (df=1,316)
2	상수	20.67	2.08		.10
	어머니표상	.03	.06	.04(ns)	15.40*** (df=2,315)
	자아 탄력성	.21	.05	.28***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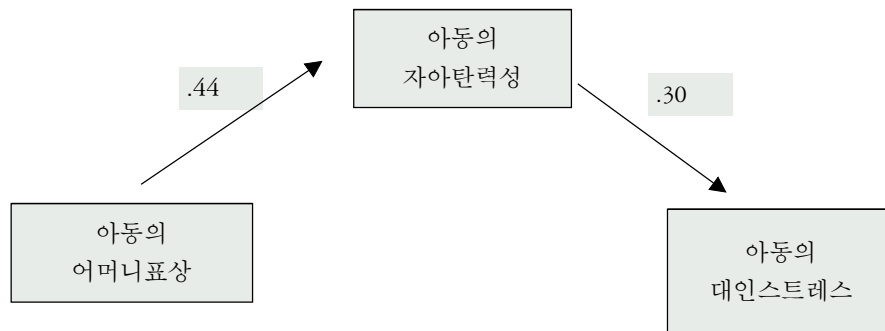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

IV. 논의 및 결론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318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할 때 높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동이 어머니와 상호작용할 때 기대하게 되는 관계표상이 강압적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일수록(Rudolph, et al., 1995), 과잉긴장 및 불안(Solomon & George, 1999; Zimmermann, 1999), 우울증상(김영아, 2000; Rudolph, et al., 1995), 문제행동(김미정, 이

춘재, 2006), 위축 및 공격성(김귀연, 김경연, 2005), 부정적 또래표상(나유미, 2001; 정명진 외, 2006; 정미현, 2003) 등을 나타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가장 가까운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형성하며(고은정, 1996; Stroufe et al., 1993),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아동의 대인관계나 적응양식에 긍정적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형성한 경우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대인스트레스의 감소 또는 증가에 기여하는 인지적 요인 역할(Shirk & Eason, 1996)을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점차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초기 청소년기 진입기(이사라, 박성연, 2001)임을 고려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를 어머니표상의 직접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표상 효과를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할수록 낮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형성하는 것과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강희경, 2003; 김미정, 이춘재, 2006; 김선희, 2005; 이경숙 외, 2003; 이은미, 박인진, 2001; 정미현, 2003; Cassidy, 1988; Werner & Smith, 1982)를 지지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반응적이고, 자신을 수용해주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기꺼

이 지지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Rudolph et al., 1995). 아동은 자기 자신을 감정을 조절하고 외적, 내적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Block & Kremen, 1996)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어머니와의 안정된 관계경험은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형성하며 이러한 아동일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표상의 효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된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제시한 첫째와 둘째의 결론 및 아동의 대인스트레스가 어머니표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통제되었을 때 그 유의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어머니표상 통제 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어머니표상에 의해 영향 받지만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초기 청소년기 진입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어머니표상보다 자아에 대한 인식 즉 자아탄력성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대처에 중요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김교현 외, 2005; 김윤희, 황순택, 2003; 현은민, 박혜영, 2005; Friberg et al., 2006; Neighbors et al., 1993)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에서도 역시 가족건강성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의 영향력이 아동

자신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자녀양육행동에 관한 어머니 교육보다 아동의 내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표상의 영향력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지도와 상담 그리고 부모교육은 여전히 주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요인인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동 자신의 내적인 특성 즉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있어 어머니표상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자아탄력성은 아동에게 환경에 대해 탄력성을 갖게 하는 자기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느끼고 자가 주변의 타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개인에게 있어 심리적 지지자원으로 기능하였고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이에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강화하였으며 이 기능은 외적 환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측면에서 접근하려 했기 때문에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를 폭넓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

닌다. 또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이 어머니표상으로 제한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추후 노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관련변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아탄력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환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 요인을 아동 내부에서 발견하여 강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 2000)은 아동으로 하여금 취약한 환경에 대해 탄력성(resiliency)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예비부모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과 부적응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고영미 (1995). 유아의 스트레스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3-126.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미정, 이춘재 (2006). 아동의 모-자관계 표상, 문제행동과 상담초기 치료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285-302.
- 김선희 (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 (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70.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43-362.
- 김지영 (2002).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유미 (2001).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연계: 인지표상모델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 22(1), 83-96.
- 민성혜, 신혜원, 이영 (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 발달. 아동학회지, 25(6), 153-170.
- 민성혜, 이영 (2006). 이야기를 통한 유아내적 표상과 행동억제, 아동학회지 27(3), 81-100.
- 민하영, 유안진 (1999)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9), 1-12.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다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1.
- 이경숙, 정석진, 신의진 (2003) 학령전기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표상차이: 양

- 육자, 자기, 표상구조.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6(2), 71-86.
- 이사라, 박성연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63-72.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이흥탁 (2001). 사회조사 방법론-사회조사와 자료분석기법-. 서울: 법문사.
- 임주희, 최연실 (2006).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관련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방향. 아동학회지, 27(4), 233-246.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정명진, 김광웅, 조유진 (2006).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표상 및 또래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3(1), 169-183.
- 정미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 (2001).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9), 175-188.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은민, 박혜영 (2005). 시설보호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lock, J., & Kremen, A. (1996). IQ and ego -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al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89-114). NY: The Guilford Press.
- Burks, V. S., Dodge, K. A., Price, J. M., & Laird, R. D (1999). Internal representation models of peer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blematic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02-810.
- Cashdan, C. (1988). *Object Relation Therapy*. NY: Norton.
- 이영희, 고향자, 김해란, 김수형 공역 (2005). 대상관계치료. 서울: 학지사.

- Compas, B. S., & Wagner, B. M. (1991).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5, 204-221.
- Friborg, O., Hjemdal, O., Rosenvinge, J. H., Martinussen, M., Aslaksen, P. A., & Flaten, M. A. (2006). Resilience as a moderator of pain and stres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1(2), 213-219.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9), 459-466.
- Gordon Rouse, K. A. (1998). Infant and toddler resili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6(1), 47-52
- Herman-Stahl, M., & Peterso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7, 307-316
- Holmes, J. (1993).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이경숙역 (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wok, O., Hughes, J. N., & Luo, W. (2006). Role of resilient personality on lower achieving first grade students' current and future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in press.
- Lemper, J. D., & Clark-Lempers, D. (1990). Family economics stress,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adolescent distress. *Journal of Adolescence*, 13, 217-229.
- Letzring, T. D., Block, J., & Funder, D. C. (2005). Ego - control and ego- resiliency: Generalization of self-report scales based on personality descriptions from acquaintances, clinicians, and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4), 395-422.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Lyons-Ruth, K. (1996). Attachment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64-73.
- Neighbors, B., & Forehand, R., McVicar, D. (1993). Resilient adolescents and interperson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3), 462-471.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84-294.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Rudolph, K. D. (1994). Depression vulnerability in

- children: The role of cognitive - interperson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Rudolph, K. D., Hammen, C., & Burge, D. (199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lf, family, and peer, and self representations in school-aged children links with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6, 1385-1402.
- Rutter, M. (1979). *Changing youth in a changing society*. London: Nuffield Provincial Hospital Trust.
- Shirk, S., & Eason, A. (1996).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others as moderators of emotional distress among young adolesc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Boston.
- Solomon, I., & George, C. (1999). The measurement of attachment in infancy and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287-316). NY: The Guilford Press.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0.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s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1), 183-201.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Guilford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Y: McGraw-Hill.
- Zimmermann, P. (1999). Structure and functions of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their role for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3), 291-306.

1 차원고접수 : 2006. 10. 01.

수정원고접수 : 2006. 11. 23.

최종게재결정 : 2006. 12. 05.

Ego Resiliency in School-aged Children Correlates with Interpersonal Stress

Hye-Jin Kwon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as perceived by school-aged children have indirect effects on their interpersonal stress through ego-resiliency. The subjects were 318 six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Statistical techniques were Pearson's correlation,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were that (1)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were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terpersonal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2)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were significant predictor of ego-resiliency in school-aged children; (3)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had an indirect impacts on interpersonal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which was mediated by their ego-resiliency.

Key words : cognitive representation of mother, ego- resiliency, interpersonal stress